

여름보다 더한 불황속 국산매기 뚝 떨어져 가뭄영향으로 올 작황 부진, 시세 '들쭉날쭉'

한약시장 경기가 썰렁하다. 예년 이맘때 같으면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침체돼 있던 한약 시장 골목들도 다소 활기를 띠기 시작할 시기지만 올 가을 한약재시장 경기는 계절을 앞지르듯 한겨울 칼바람 만큼 냉기가 감돈다.

지난 봄가뭄에 가을 가뭄까지 겹친 산지에서는 작황이 그리 좋지않아 울상인데다 앞찬데 덮친격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식품용 수입약재로 인해 국내 생약생산자들은 숨 한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햇것 출하시기를 앞두고 있는 9월말 현재 국산 한약재 시세는 전반적인 내림세 경향. 본격적인 햇것 출하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한약재는 제대로 시세형성이 안되고 있는 상황.

상보합세 품목들도 매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장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국산 매기율은 예년비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설명. 국내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로 국산 시세가 상보합세 경향을 띄고 있는데다 경기부진으로 한의원이나 한약방들에서는 국산을 찾는 매기율이 예년의 7:3에서 지금은 3:7로 바뀔만큼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특히 국내 주 생산 품목들의 경우도 제시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물량이 부

족하다 싶으면 발빠르게 매점 매석해 값을 폭등시키고, 그 틈을 악용, 식품원료로 대량 반입된 수입산 약재들은 국산과 혼용 유통시킴으로서 시세가 들쭉날쭉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식품용 반입약재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과의 구별이 뚜렷한 국산 약재들의 경우는 그대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품목들의 경우 제 시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귀 일부 장사군들의 매점매석 영향으로 근당(6백g기준) 9천5백원(절)까지 폭등했던 토당귀 시세가 햇것 출하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춤한 상태.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 도매시세는 지난달 8천원(통), 9천5백원(절) 선보다 다소 내린 7천2백원(통), 8천5백원(절) 선이다. 이같은 당귀시세 하락 배경에는 식품용으로 반입된 수입당귀 미를 국산과 섞어 단가를 떨어뜨린 장사군들의 장난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분석. 최근 식품원료로 부산세관을 통해 반입된 수입산 당귀는 41만근이며 인천세관이나 군산세관을 통한 물량까지를 합하면 약 1백만~2백만근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들 수입당귀

가 산지로 내려가 국산과 섞여 시중유통되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100% 국산당귀는 매기도 없을 뿐 아니라 제 값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재배면적 증가로 수확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지에서는 지금부터 햇당귀 판로를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구기자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구기자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이 근당 9천원 선으로 지난달 보다 다소 하락세. 산지에서는 근당 7천~7천5백원 선이다. 진도산 구기자는 근당 1만원. 바다에서는 9천원 선이다. 청양산과 진도산의 시세차가 이렇듯 큰 이유중 하나는 청양산은 진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산과의 혼용율이 높기 때문이란. 햇것 출하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알도 굵지 않고, 양도 소량. 시세가 인건비도 건지기 힘든 1만원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농가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구기자 수확작업에 신경을 안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추석 지나고부터 본격적인 햇것 출하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가뭄영향으로 올 구기자 수확량은 평년작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길경 시세 꾸준한 상승세. 지난 6월초 근당 6천5백원(통), 2천8백원(절)

것으로 예상. 한편 산길경은 수량이 감소 시세도 20%포인트 오른 7~8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야생채취품목 오름세
O...생산시기의 오미자 시세도 역시 내림세. 50원 하던 오미자 시세가 9월말 현재 22원이다. 지난 겨울 동해 영향으로 수량이 감소한 연교는 시세도 6원에서 11원으로 오름세. 참고 물량은 충분한 편이라고. 중국정부의 야생 약초 채취 통제 영향으로 수량이 감소한 황백 역시 시세가 10% 이상 상승세 보이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안국시장에서 5.8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선이던 국산 길경 값이 9월말 현재 근당 9천원(통), 4천원(절) 선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다. 국산 물동량이 귀한데다 시중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길경이 국산과 쉽게 구별되기 때문. 국산 길경은 수입산에 비해 향이 강하고 잔뿌리가 많아 절단했을시 단면이 수입산에 비해 굵지 않다.

맥문동 작년 이맘때 근당(6백g기준) 9천원 선이던 맥문동 시세가 울해는 바다에서 7천~7천2백원, 품질 떨어지는 것은 근당 5천5백~5천7백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9월말 현재 경동 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맥문동 시세는 청양산이 7천8백원(거심), 4천5백원(막막) 원 선이며 밀양산은 9천5백원(거심), 5천3백원(막막) 선이다. 햇것 출하가 이미 끝난 맥문동은 올 수확량 증가로 물량 많지만 경기부진으로 매기가 없어 시세 약보합세 보이고 있다.

산수유 햇것 출하를 앞두고 있는 산수유 시세는 다소 내림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비둔화로 재고물량이 아직 많은 상태.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 (6백g기준) 산수유 도매시세는 상품이 1만4천원, 중품이 1만1천원 선으로 지난 8월초 보다 2.3천원 폭으로 시세 떨어졌다. 경기도 이천과 양평 지역의 올 산수유 작황이 그리 대단치 않은 반면 구례 지역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어서 평년작을 기대해도 좋을 듯. 햇것 출하기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시세는 당분간 약보합세 보일 전망이다.

작약 지난달 근당(6백g 기준) 9천원 선까지 올랐던 작약값이 최근 햇것 출하가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면서 시세 주춤하며 다소 하락한 상황. 9월말 현재 경동 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작약 근당 도매시세는 상품 8천원, 중품 6천5백원, 하품은 4천8백원 선이다. 예년비 2천원 폭으로 시세 올랐으나 상품 물량도 많지 않고 매기도 없어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석

명절이 지나면서 햇것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 봄가뭄에 가을 가뭄까지 겹쳐 작황은 그리 좋지 못한편이라고. 평당 수확량이 예년비 30~40%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수입작약이 생근으로 국내 반입돼 근당 1천2백~4백원 선에 시중 유통되고 있다는 산지인의 설명. 햇것 출하를 앞두고 있는 국산 작약 시세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천궁 매점매석 상인들의 장난으로 근당(6백g기준) 1만원 선을 호기했던 일천궁 시세가 9월말 최근 들어서는 근당 5천5백원(절) 선으로 또다시 곤두박질. 통자는 4천2백~4천5백원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땅속의 것을 수확해봐야 알겠지만 올 가뭄 피해를 고려한다면 작황은 안심할수 없는 상황. 그러나 올 일천궁 재배면적이 작년비 40% 가량 증가함에 따라 수확량은 평년작 예상. 시세도 근당 3천5백원 선까지 더 떨어질 것이란 분석과 함께 물량매점의 분위기도 점쳐지고 있다. 국산 일천궁과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울 만큼 흡사한 수입천궁이 대량 식품원료로 반입돼 시중에서 국산과 혼용 유통되고 있어 시세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토천궁 시세는 근당 1만5천원 선으로 보합세다.

하수오 8월초 근당(6백g기준) 1만3천원(상품), 1만1천원(중품) 선이던 백하수오 시세가 햇것 출하를 앞두고 다소 내림세 보이고 있긴 하지만 국산 물동량이 거의 없어 여전히 상보합세다.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백하수오 근당 도매시세는 상품이 1만2천원, 중품은 9천5백원 선이다. 당분간 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향부자 수입개방 영향으로 국내 생산농가들이 재배를 포기, 지난해 생산량이 급감했던 향부자는 그래서 국산 물량이 귀하다. 재고량도 많지 않은데다 수입개방으로 중국산 향부자가 수입돼 오기는 하지만 수입산이 국산과는 뚜렷이 대별되는 까닭에 국산을 찾는 사람들은 국산 소비경향이 뚜렷. 시세도 예년비 2천원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9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국산 향부자 시세는 근당(6백g기준) 4천5백원 선이다. 재배면적 감소로 올 향부자 수확량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속에 시세도 당분간 보합 전망이다. <문>

중국약재 시장동향

단삼재배인기
O...최근 박주 약농들이 주목하는 품종은 백작약, 목단, 길경, 단삼 등이다. 그중 단삼은 1998년 줄곧 경기가 좋았고 시세 좋을 때는 근당 12~15원까지 형성되기도 했다. 2000년 들어 한 풀 꺾이긴 했지만 농가에서 단삼 재배열기는 아직 식지않은 상황이라고. 한무(畝)의 단삼을 심어 잘 관리하면 그래도 1천~1천5백원까지 소득을 올릴수 있기 때문이다. 햇것 출하가 아직 이른 9월 중순 현재 안국 약재시장에서의 단삼 가격은 근당(6백g기준) 8.5~9.0원 정도다.

생건지황 보합세
O...올 작황이 풍년인 강

활은 근당 40원에서 시세가 다소 내려 22~23원 정도. 지황은 금년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지만 재고량이 많아 시세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란 분석. 9월 말 현재 생건지황 가격은 중국 현지에서 근당 3.5원 정도로 보합세 이루고 있다.

햇것 출하로 시세 내림세
O...황련은 산지에서 110원. 안국에서는 120~130원 정도. 지난 여름 7원 선이던 백작약은 햇것 출하가 시작되면서 4~5.5원으로 시세 내렸다. 천마도 햇것 출하되면서 20원 폭으로 값이 내려 170원 선이며 올 재배면적 증가로 햇것 출하량도 늘